

포스코엠텍, 희소금속 생산 본격화

32억원 투입 영월 제련공장 건설 ... 산화몰리브덴에서 합금철까지

포스코엠텍이 영월에 몰리브덴 제련공장을 건설한다.

포스코엠텍은 강원도 영월에 자본 대비 2.1%에 해당하는 32억3500만원을 투입해 몰리브덴 제련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1월19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포스코엠텍은 포스코그룹의 소재 부문 계열사로 2012년 하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해 2400톤의 산화몰리브덴(MoO_3)을 생산할 방침이다.

신축공장에는 습식탈황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 건식기술에 비해 낮은 생산코스트로 고부가가치 원료 생산이 가능하며, 미국 마운트 호프(Mt. Hope) 광산을 활용해 페로몰리브덴(FeMo), 페로바나듐(FeV) 등 다양한 합금철 생산도 가능하다.

포스코엠텍은 마운트 호프 광산에 2011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2300만달러를 투자해 안정적인 원석 수입원을 확보한 바 있다.

포스코엠텍은 영월 제3농공단지 4만 m^2 부지를 매입해 2012년 하반기에 탄탈륨(Ta), 네오디뮴(Nd) 습식제련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영월에 비철금속·희소금속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포스코엠텍 관계자는 “세계 몰리브덴 시장은 앞으로 3년간 공급부족이 예상돼 국내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습식탈황 제련사업을 계기로 몰리브덴 원료광산에서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강릉 옥계 마그네슘 제련사업에 이어 영월에 포스코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둬 따라 강원도가 비철금속 소재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상업화가 가능한 비철금속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비철금속산업의 추가 유치와 함께 마그네슘과 몰리브덴 등의 소재를 적용하는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관련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0>